

“정정 장흥 한약재로

고부가제품 만들 것”

조정희 초대 전남한방진흥원장



“청정지역인 장흥의 한약재를 이용해 고부가가치 한방제품을 연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전남한방진

업진흥원 초대원장

에 임명된 조정희
(55)약학박사는 “한방산업진흥원이 오는 10월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 문을 열면 장흥한방생약특구를 이끌 전초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우선 개원에 앞서 ▲연구인력 선발▲연구 기자재 도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 출신으로 동력여대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 제작장을 역임한 생약분야의 베테랑이다. 조 원장은 식약청 과학형식으로 앞으로 2년간 원장으로 일하게 된다.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셋째 아이 생겼어요”

차인표·신애라, 여아 또 입양

탤런트 차인표

(40) · 신 애 라
(38) 부부가 또다시 여자 아기를 입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5년 12월 생후 1개월 된 여자 아기를 입양했던 이들 부부가 지난 2일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두 번째로 입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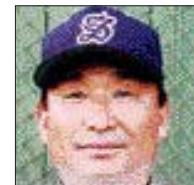
차인표는 28일 “첫 번째 입양 때는 주변에 알렸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져겠지 싶어 굳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1995년 결혼해 열 살짜리 아들 정민을 낳은 이들 부부는 둘째 이름은 예은, 셋째는 예진이로 지었다. 두 차례 입양 모두 서울 역삼동 사회복지법인 대안사회복지회를 통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한동화씨 中 프로야구 지휘봉 잡다

한동화(63) 전 쟁방을 감독으로 중국 프로야구 베이징 타이거스 지휘봉을 쥐어 봤다.



한 감독은 지난 10일 베이징으로 가서 열흘 간 선수들을 지도한 뒤 구단 측과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20일 귀국했다. 정식 계약은 다음달 10일 현지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실버복지회 무료 생활법률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헤적정리, 가정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

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이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

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홍덕장사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장계환) 임원회의=30일(수) 오전 11시 장애인 먼저 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1층. 010-5522-9700.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결혼이민자기족 지원 전문지도사 모집=기간 18일(금)~29일(화), 찾아가는 한글 교육·아동 양육 서비스. 363-2963.

▲사람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 385-0422

▲아카데미 지원봉사협의회 자원

▲참사랑 노인복지센터 유급 봉사자 모집=기간 18(금)~30일(수), 차량 소유 유급봉사 자격증 소지자 3명이내, 시급 5천원. 944-5680~1.

▲광주노인지도자대학 무료 교육 모집=기간 1월 28일(월)~2월 20일(수), 60세 이상 산신 건강한 노인, 매주 수요일 2시간 수업, 종식제 공. 652-7374.

▲우리문화연극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371-4242

▲사람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 385-0422

▲아카데미 지원봉사협의회 자원

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412-3201

▲부동산 경·공·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금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증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임영팀 230-4246~9

▲횡성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크션·액자·지갑·열쇠 고리·휴대 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512-4000, 528-1542

▲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문의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 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

7695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모집=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광주아이비지합창단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223-0808, 016-601-319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223-8529, 016-223-9541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 전 예약 가능, 0505-206-0106

▲푸른학당=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반·기초반), 오후반(초등반·기초반)

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부록

▲조영조씨(농협 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김홍주씨(〃 교육지원부부장)

내방

▲장세근 화백 장남 성남씨
'빨래터' 원소유자 만난다

고(故) 장세근 화백의 장남 박성남(61) 화백이 아버지의 작품 '빨래터'를 오랜 기간 소장하고 있다가 무려 45억 2천만원에 팔아 행운의 주인공이 된 존 릭스(81)씨를 만난다.

서울옥션 등에 따르면 박성남 화백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캔터키주를 방문해 릭스씨를 만날 예정이다.

박 화백은 28일 미국 방문에 대해 “릭스씨는 1950년대 중반 아무도 작품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의 작품을 알아보고 일본에서 물감을 사다주는 등 창작에 도움을 준 분”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직접 만나 인사 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 작업에 참여해 릭스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릭스씨는 “박수근 화백은 괜찮은 신사였다”며 언제든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빨래터’에 대해 위자 의혹을 제기한 미술 전문잡지 ‘아트레이드’가 ‘진품’ 판정을 내린 재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옥션은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박수근 화백은 1950년대 중반 아무도 작품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의 작품을 알아보고 일본에서 물감을 사다주는 등 창작에 도움을 준 분”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직접 만나 인사 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 작업에 참여해 릭스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릭스씨는 “박수근 화백은 괜찮은 신사였다”며 언제든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빨래터’에 대해 위자 의혹을 제기한 미술 전문잡지 ‘아트레이드’가 ‘진품’ 판정을 내린 재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옥션은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박 화백은 28일 미국 방문에 대해 “릭스씨는 1950년대 중반 아무도 작품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의 작품을 알아보고 일본에서 물감을 사다주는 등 창작에 도움을 준 분”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직접 만나 인사 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 작업에 참여해 릭스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릭스씨는 “박수근 화백은 괜찮은 신사였다”며 언제든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빨래터’에 대해 위자 의혹을 제기한 미술 전문잡지 ‘아트레이드’가 ‘진품’ 판정을 내린 재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옥션은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박수근 화백은 1950년대 중반 아무도 작품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의 작품을 알아보고 일본에서 물감을 사다주는 등 창작에 도움을 준 분”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직접 만나 인사 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 작업에 참여해 릭스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릭스씨는 “박수근 화백은 괜찮은 신사였다”며 언제든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빨래터’에 대해 위자 의혹을 제기한 미술 전문잡지 ‘아트레이드’가 ‘진품’ 판정을 내린 재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옥션은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박 화백은 28일 미국 방문에 대해 “릭스씨는 1950년대 중반 아무도 작품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의 작품을 알아보고 일본에서 물감을 사다주는 등 창작에 도움을 준 분”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직접 만나 인사 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 작업에 참여해 릭스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릭스씨는 “박수근 화백은 괜찮은 신사였다”며 언제든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빨래터’에 대해 위자 의혹을 제기한 미술 전문잡지 ‘아트레이드’가 ‘진품’ 판정을 내린 재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옥션은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박수근 화백은 1950년대 중반 아무도 작품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의 작품을 알아보고 일본에서 물감을 사다주는 등 창작에 도움을 준 분”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직접 만나 인사 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 작업에 참여해 릭스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릭스씨는 “박수근 화백은 괜찮은 신사였다”며 언제든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빨래터’에 대해 위자 의혹을 제기한 미술 전문잡지 ‘아트레이드’가 ‘진품’ 판정을 내린 재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옥션은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박수근 화백은 1950년대 중반 아무도 작품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의 작품을 알아보고 일본에서 물감을 사다주는 등 창작에 도